

### 31. 작은 뿔과 한 때 두 때 반 때의 실상

2012. 7. 2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시간의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지요. 지난 시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 연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부탁드립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7:23~25]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1. 목사님 같은 성경말씀을 세 번째 사용하십니다.

답: 아직 이 말씀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2.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 역사적 사실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본 성경구절의 마지막 내용인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하여 생각해볼 시간이 아닙니까?

답: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은 그 자체가 상징적 표현으로 보이지요.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성경의 해석을 찾아봐야 하겠지요. 다니엘 11:13에 대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찾아 읽으시지요.

[단11: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예, 여기에 “몇 때 곧 몇 해”라고 했습니다. 때는 몇 해라고 할 때 해를 뜻하지요. 곧 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입니다. 합해서 삼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전성기를 누리는 기간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삼년 반 동안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3. 삼년 반이라는 당시에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라도 힘들고 지겹겠지만 그래도 그리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참, 그런데 목사님, 지난 시간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오해에 대하여 말씀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 그렇군요. 깜빡 잊었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멸절하라 또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한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 시간에 말이 나왔으니 또 간단하게 이야기 하지요.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아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단정합니다.(고전 15:22)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고, 그가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는 주은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사형집행이 얼마동안 유예된 생명으로만 살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집행일까지 살아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형수와 다른 것은 아담은 근본적으로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태어나는 후손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멸절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그 진멸되고 멸절되는 상태에서 건져내어주지 않으면 멸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실 수 없어서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죽음을 대신 당해주시고 부활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지요. 구약시대도 역시 이 복음이 아브라함하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전해졌고, 더 올라가면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죽은 짐승이 바로 구주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오실 구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을 받고 장차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려주시려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한계가 지나칠 때에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멸절 상태로 두시게 됩니다. 그것은 살 기회를 완전히 거절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살려주시려는 분을 오히려 대적할 때 취하는 조치인데, 그들을 죽은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죽은 자의 세계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자의 세계에는 죽은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멸절하는 것이나 진멸하는 것은 죽은 자를 처리해주는 것인데 곧 장례식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어쩌면 들으시는 분들에게 귀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복음은 분명히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4. 그 말씀 언제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애청자들께서 잊어버렸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인들에 대한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중세 교권이 이단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을 그렇게 처리했다는 뜻이지요?

답: 그렇지요. 탈레반들이 문자대로 불상도 깨뜨리고 여자들은 교육도 받지 마라 또는 혼자서 밖에 나오지도 마라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오직 율법적으로 율법 조문으로 보기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들이지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깨달으면 제가 설명

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중세에 교권이 그렇게 성도를 핍박한 이면에도 복음에 대한 오해가 사상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애청자들이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본론으로 넘어가지요.

5. 그러지요. 이제는 정말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설명을 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면 삼년 반이라는 당시에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라도 힘들고 지겹겠지만 그래도 그리 긴 세월은 아닌 것 같다고 했지요.

답: 예, 그것이 실제적인 연수라면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표현이 상징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했수로는 삼년 반입니다. 그런데 달수로는 42달이지요. 날짜로 해면 1260일이 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가 1260일이라는 것도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6과 13절을 읽어보시지요.

[계12:6,14]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닳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예, 6절에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도록 예비된 곳이 있다고 했고, 14절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1260일간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간에 대한 말이 일곱 번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두 번 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고 어떤 때는 42달이라 하고 어떤 때는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기간입니다. 이런 표현들로 하여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고요. 왜냐하면 삼년 반이 42개월이고 그것이 1260일이니까 한 달은 30일이 정확하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상징적 예언에서 계시된 날 수들이지 않습니다. 예언적 상징으로 주어진 날의 1일은 역사적 연대로는 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6을 읽어보지요.

[겔4: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일 일이 일 년이니라.

이 말씀은 예언적 1일이 역사적으로 1년이라고 계산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한 때 두 때 반 때는 1260년이라는 역사적 기나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작은 뿔이 세력을 떨치겠다는 예언입니다.

6. 그냥 삼년 반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닐 텐데 1260년은 참으로 긴 기간이군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있을 일입니까? 현재로부터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입니까?

답: 글썄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미래의 일로 보기도 하는데 특히 세대주의 학자들은 미래 사건으로 해석을 하지요.

7.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유익할 것 같은데요?

답: 글썄요, 유익할까요? 아니면 혼란할까요? 아무튼 성경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대답을 듣는 것이 바른 순서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제까지 우리는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인지 샅샅이 살펴보았지요. 그것은 로마라는 제국에서 게르만 민족의 대 이동으로 이루어진 여러 나라들이 발생하는 것이 10뿔로 표상되었고, 그런 나라가 성립된 후에 또 제국 로마의 영토 안에서 다른 한 작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교권로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전성기를 누리는 기간이 1260년이라는 뜻이지요. 이 설명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입니다. 미래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작은 뿔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 때문인데,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방송 강론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8장 강론을 할 때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교회가 이해하는 것을 말씀해야 할 것 같습니다.

8. 그렇게 하지요. 그렇다면 목사님, 1260년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무 때나 막연하게 그 기간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답: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되지요. 우리가 이미 두 시간에 걸쳐서 작은 뿔이 행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지요. 세 뿔을 뿌리 채 뽑은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것이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과 관계된 것도 이야기 했지요. 그 칙령은 533년에 선포되고 534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실어서 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지요. 그것은 로마의 교구장이 모든 기독교의 수장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헬롤리, 반달스, 동고트라는 것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뿌리 채 뽑힌 것이 538년입니다. 그때부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 로마 교구장이 모든 기독교의 머리가 된다는 법령이 방해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126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기간을 역사가들은 암흑시대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요.(마5:14~16)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세상을 지배한 교회가 결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증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흑 세력이 주장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됩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의 형태로 있는데 실제로는 암흑시대의 주역이었으니까요.

9. 그러니까 1260년의 시작은 기원 538년이라는 말씀인데, 그때부터 계산하면 끝이 기원 1798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답: 서양사를 살피면 그때가 프랑스 혁명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혁명의 배경을 말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다만 그 기간에 교권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면 될 것이지요. 혁명은 귀족과 성직자들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반감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프랑스 인구 전체의 2%정도밖에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이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횡을 했으니까요. 그때 혁명군들은 성직자들을 많이 죽이고 유배 보내고 했지요. 그리고 혁명군의 장군 베르띠에가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 프랑스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위는 결코 아무도 계승할 수 없다고 포고했지요. 그때가 바로 1798년입니다. 피우스 6세는 프랑스 남부의 리용과 마르세이유 사이에 위치한 발랑스 감옥에 유폐되고 이듬해 즉 1799년 8월 29일에 죄수로 옥사했습니다. 그때가 81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38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 교구장의 교회 수장령이 온전히 시행되게 된 때로부터 교권이 프랑스 혁명군에 의하여 꺾이게 된 1798년까지는 정확하게 1260년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처음부터 보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예언을 연구하여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으니 또 감사하고 성경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예언의 성취의 정확성을 확인하시고 확신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은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0.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혹 교권국 당사자들은 그들의 입지를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답: 저도 그것은 잘 모르는 일인데요, 제가 원래 3대째 속칭 장로교인었습니다. 장로교라는 종교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교 장로회이지요. 혹은 기독교 장로회거나. 그런데 쉽게 장로교라고 하니깐 나도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때 말세론을 좀 배웠는데요, 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전 삼년 반, 후 삼년 반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7년 대환난과 연관해서 말했거든요. 7년 대환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회유하여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데, 전 3년 반은 설득으로, 후 3년 반은 핍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누군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역사의 종말 때에 나타날 어떤 위대한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이상한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7년 대환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 7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답: 아마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기에 한 이레 동안 굳게 언약을 맺고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에 준해서 이레의 절반이면 3일 반이지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삼년 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9장 공부할

때 해야 하겠지요. 제가 장로교일 때 배운 것과 재림교인이 되어서 배우고 연구한 것과 대조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물론 믿는고로 그렇게 말합니다.

11. 예 목사님, 설명을 명쾌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애청자들께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뿔의 정체와 그 뿔이 행한 역사적 사건들을 잘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한 본래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아 시대에 바른 믿음으로 예언이 지적한 바로 그곳에서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아직 다니엘 7장 내용이 다 설명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들이 작은 뿔에게 붙인바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작은 뿔이 권세가 빼앗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우리가 7장 25절까지 오면서 사실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디다. 그 구절은 26절에 있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곧 심판에 대한 계시이지요.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의 무서운 행사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 그 심판 사건은 다룰 시간이 없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꼭 이해해야 할 계시이니까요. 먼저 7:25,26을 한 번 읽지요.

[단7:25,26]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예, 25절 내용을 아주 길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바로 이어서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심판의 심판정이 9~1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1~8이 네 마리 맹수와 작은 뿔에 대한 계시였고, 17~25절이 천사가 네 마리 맹수와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계시였습니다. 그 사이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성경에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사간에 대하여 계시해주실 때 거의 먼저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보증을 하시고 환난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능력의 보증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환난 중에 이 보증으로 잘 견디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도 확실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보증이 우리 것입니다.

12. 목사님, 시간이 너무 간 것 아닙니까. 기도로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엄청난 비밀을 알도록 사랑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니 결코 속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예언으로 인도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